

재무와 회계 분야 연구업적의 특징 분석

이 의 경*

〈요 약〉

본 연구는 재무와 회계 분야의 연구업적이 갖는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을 위해서 연구업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학교요인과 교수요인, 두 가지 범주로 구분했다. 학교요인으로는 연구자의 소속 대학과 관련된 네 가지 설명변수(설립유형, 지리적 위치, 보상체계, 학과규모)를 사용했다. 교수요인으로는 학업경로와 관련된 세 가지 변수(동(同)대학원, 미국박사, 전공)와 근무기간을 사용하였다. 피설명변수는 전체 업적을 먼저 분석한 후 국제논문, 국내논문, 저서,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해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학교요인을 분석해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공립대는 사립대에 비해서 연구업적이 낮은 편이다. 둘째, 서울소재 대학은 국제논문의 연구업적이 높고 서울외 소재 대학은 국내논문의 연구업적이 높은 편이다. 셋째, 보상체계는 유의성이 높게 나타나서 성과급적인 연구비가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넷째, 학과규모는 국내논문에서만 유의적인 정(+)의 관계를 보이고 국제논문에서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대학원 변수는 국내논문에서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여 이종교배의 연구력을 확인시켜주었다. 둘째, 미국박사 변수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반대로 국제논문과 국내논문에서 모두 낮은 업적을 보였다. 셋째, 재무전공은 국내논문에서 부(-)의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재무분야가 회계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논문발표회기 적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근무기간은 저서업적에서만 유의적으로 정(+)의 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학문적 성격이 유사한 재무와 회계 분야를 대상으로 하면서 연구업적의 특징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연구업적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이고 유효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 재무, 회계, 연구업적, 학교요인, 교수요인

I. 서 론

본 연구는 재무와 회계 분야의 연구업적을 대상으로 해서 그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경영학의 세부 각론 중에서도 재무와 회계 분야는 가장 유사한 성격을 갖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들 분야의 연구업적 특징을 함께 분석한 것이다. 동질적인 대상을 분석한 결과를 이용하여야 연구업적의 향상을 위한 유효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대학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최근의 현실에서 대학을 평가할 때 연구업적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연구업적의 특징을 분석하는 연구는 대학발전을 위한 정책에 유용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므로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선행연구들은 인문사회, 이공계열 등 전체 학문을 대상으로 연구업적의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분석범위가 포괄적이면 분석결과와 활용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분석결과와 유의성을 담보하고 연구업적으로 효율적으로 향상시키려면 학문적 동질성을 전제로 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해서 재무와 회계 분야의 연구업적에 대한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경영학의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많은 대학들이 재무와 회계 분야는 경영학의 다른 전공과는 독립적인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점도 본 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62개 대학교의 재무와 회계 분야 325명 교수의 연구업적을 집계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업적의 특징을 설명하는 요인을 학교요인과 교수요인, 두 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학교요인으로는 대학의 설립유형, 소재지, 보상체계, 규모 등의 변수들을 이용했고 교수요인으로는 학업경로, 전공, 근무기간 등의 변수들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은 논문업적을 단일의 성과변수로 측정하고 분석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업적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심층적인 분석을 하였다. 즉, 논문과 저서를 합친 전체업적을 먼저 분석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논문업적을 국제논문과 국내논문으로 세분해서 분석하였다. 여기에 저서업적까지 분석해서 업적의 유형별로 나타나는 특징을 비교하였다.

본 논문은 네 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다. 제 I 장 서론에서는 연구주제, 연구의 필요성, 연구내용을 소개하였다. 제 II 장에서는 연구업적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검토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모형을 제시하였다. 분석모형은 학교요인과 교수요인을 연구업적과 관련해서 가설을 세우고 이러한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제 III 장에서는 분석자료에 대한 설명과 기초통계량을 살펴보고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전체업적에 이어서 국제논문, 국내논문, 저서 등의 유형으로 분석을 추가해서 그 결과를 비교해서 설명하였다. 제 IV 장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한계점과 의의를 밝혔다. 끝으로 부록에서는 재무와

회계 분야의 업적 유형별로 연구상위자 명단을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과 연구모형

1. 선행연구 검토

연구업적을 분석하는 연구는 1980년대부터 수행되어 왔는데 이들 연구는 크게 두 개의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학교의 특성을 분석해서 연구업적과의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이다. Long and McGinnis(1981), Allison and Long(1990) 등은 대학의 특성이 연구업적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대학의 지리적 위치, 유형, 규모와 같은 물리적 요인과 연구풍토와 같은 문화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렇게 변수를 설정한 것은 조직의 성과가 조직의 특징적인 자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자원준거이론(resource based view)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Dundar and Lewis(1998)는 좀 더 자원의 개념을 다양화시켜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주립대/사립대여부, 정교수 비율, 대학원 학생 수를 설명변수로 사용했는데 분석결과에서는 사립대가 주립대보다 더 연구업적이 높게 나타나서 대학의 유형이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또 정교수비율이 높을수록 연구업적이 더 높게 나타나 직급이 연구업적과 정(+)의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둘째는 개인의 역량(competency)이 연구업적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인종, 성별, 결혼여부, 직급 등과 같은 교수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업적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이다. Wanner et al.(1981)은 종신지위(tenure)는 연구업적과 부(-)의 관계, 재직기간과 학교랭킹은 정(+)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Maske et al.(2003), Link et al.(2008) 등은 인종, 성별, 학교랭킹, 결혼유무, 보직 등의 변수를 연구업적의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인종은 연구업적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성별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은 연구에서, 여성은 수업과 봉사활동에서 우위를 보였다. 그리고 보직은 연구업적과 부(-)의 관계를 보여서 보직교수들의 연구업적이 낮다고 했다. Over(1982)와 Oster and Hamermesh(1998)은 교수의 나이와 연구업적과의 관계를 분석해서 나이가 들수록 연구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Xie and Shauman(1998)은 교수들의 부담학점, 성별, 직급, 연구비 등을 분석해서 부담학점은 연구업적에 부(-)의 효과를 미치고 성별과 직급은 정(+)의 효과를 미친다고 했다. 부담학점이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은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그리고 높은 직급의 남성이 연구업적이 많은 것은 다른 연구자들과 교류의 기회가 많고 가용자원도 많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외에도 직급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로는 Hesli

and Lee(2011)와 Mishra and Smyth(2012) 등이 있는데 이들도 정(+)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도 연구업적과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었다. 육근효(2010)는 소속대학의 자료를 근거로 교수업적을 연구업적, 교육업적, 봉사업적을 구분해서 이 지표들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 연구업적과 관련된 것을 보면 연구업적이 높을수록 교육업적이 낮아진다는 것이 있는데 이는 Xie and Shauman(199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 연구업적보다 교육업적이 전체 업적평가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재성(2014) 역시 소속대학의 자료를 갖고 연구업적과 강의평가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직급과 재직기간이 연구업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직급과 관련된 분석결과를 보면 부교수 직급에서 연구업적이 가장 높았고 근무기간이 늘어나면 연구업적이 많아지지만 일정 시점이 경과하면서부터 연구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모두 분석자료를 특정한 1개의 대학만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이어서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서 정지선(2011)은 표본을 늘려서 우리나라 교수들의 경력단계별 연구 활동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교수 개인적으로는 연구선호도가 높을수록 연구업적이 높지만 시간이 갈수록 최신 이론이나 분석방법에서 뒤처져 일정 직급 이상이 되면 연구업적이 감소함을 보였다. 그리고 김훈호, 박환보(2011)는 전국의 779명 교수들을 표본으로 해서 이들의 최근 3년 동안의 SCI급 논문 수를 측정해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연구선호도가 높은 교수, 공동연구자가 있는 교수, 연구중심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들의 연구업적이 높다는 것이다. 이들의 연구는 연구자의 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서 분석하면서 학문분야도 인문계열, 사회계열, 이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까지 다루어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서는 분석범위가 광범위하였다. 그렇지만 분석결과는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당연한 것들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성격이 다른 모든 학문계열을 포함한 분석결과는 연구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유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동질성을 갖는 학문분야를 집중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외국의 선행연구 중에는 특정 학문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Over(1982)는 심리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Oster and Hamermesh(1998), Maske et al.(2003) 등은 경제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서로 다른 학문적 성격이 혼재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는 이의경(2020)이 한국 경영학 교수의 연구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공립대학이 사립대보다 연구성과가 낮지만 국공립대학 중에서도 거점대학은 연구성과가 높음을 보였다. 그리고 경영학 중에서 MIS와 마케팅 전공의 연구성과가 많음을 보여 전공별로 유의한 편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실무경력을 가진 연구자의 연구성과가 높다는 점도 밝혔다. 또

출신학교에 대한 분석에서는 미국박사학위의 교수들, 특정 학부 출신의 경우 연구성과가 낮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KAIST 대학원 출신 연구자의 성과가 뚜렷하게 높음을 보였다.

최근에는 연구업적에 대한 서지분석이 눈에 띈다. Kim and Kim(2021)이 *Journal of Derivatives and Quantitative Studies(JDQS)*에 30년간 발표된 논문에 대한 서지 분석을 통해서 논문을 많이 낸 저자, 많이 인용된 논문, 주요 키워드 등을 조사하였다. 또 정재만(2021)은 재무 분야에서 영향력지수(IF)를 기준으로 ‘재무관리연구’ 학회지의 연구업적에 대한 인용분석을 서지분석의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IF가 낮아지고 서울소재 대학으로 연구업적이 편중되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의 대책으로 영향력 있는 연구와 지방대학의 연구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 경영학의 종합적인 성격을 감안해서 경영학 내에서도 학문적으로 가장 가까운 재무와 회계전공 분야를 다룬 것이다. 유의적인 분석결과를 얻으려면 학문적 동질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교수요인 중에서 연구자의 학업경로에 중점을 두어 연구자가 출신학부와 같은 동(同)대학원에 진학한 경우와 타(他)대학원에 진학한 경우의 연구업적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 본 연구가 갖는 기존 연구와의 큰 차이점은 연구업적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즉, 전체 연구업적에 대해서 먼저 분석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국제논문, 국내논문, 저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조직 및 교수요인들이 연구업적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한 것이다.

연구업적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연구업적을 측정하는 값을 정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선행연구 중에서 Noser et al.(1996), Bellas and Toutkoushian(1999), Toutkoushian(2003), 김훈호, 박훈보(2011)의 연구에서는 연구업적을 연구물 수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Biglan(1973), Dundar and Lewis(1998), Marsh and Hattie(2002), Stack(2003), Bland et al.(2006) 등은 연구비 규모나 학술지의 등급을 반영한 연구업적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유형별로 차별적인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질적 수준을 고려하였고 개인별 연구기여도까지 감안해서 점수를 부여한 후 이를 연구업적 지표로 사용하였다.

2. 연구모형

본 연구가 분석대상으로 하는 연구업적은 우리나라 대학교의 재무와 회계 전공 교수들의 논문과 저서이다. 따라서 논문과 저서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점수화하고 이를 집계한 값을 업적지표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논문을 SCI, SSCI 등과 같은 국제저널에 발표된 논문은 1인 단독기준으로 200점을 부여하고 KCI 등재(후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1인 단독기준

으로 100점을 부여하였다. 저서는 국내 학술지와 같이 1인 단독기준으로 100점을 부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업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두 개의 범주, 즉 학교요인과 교수요인으로 구분하였다. 학교요인은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특성을 나타내는 환경요인을 의미하고 교수요인은 교수의 특성을 나타내는 개인적 요인들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학교요인을 구성하는 변수는 대학의 설립유형, 서울소재여부, 보상체계, 학과규모, 네 가지로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 변수인 대학의 설립유형은 국공립대학이나 사립대학이나를 의미한다. 미국의 사례를 분석한 Dundar and Lewis(1998)의 연구에서는 사립대학이 주립대학에 비해서 연구업적이 높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1: 사립대학의 경우 국공립대학에 비해서 연구업적이 높다.

두 번째 변수는 대학의 지리적 위치이다.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분야가 서울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서울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서울소재 대학의 경우에는 지리적 이점으로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학부생모집은 물론이고 교수확보에서도 유리하고 대학원생도 많기 때문에 교수의 연구환경이 좋은 편이다. 이에 따라서 교수의 승진 및 재임용에서 연구업적의 요건이 서울외소재 대학보다 더 엄격한 편이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의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2: 서울소재 대학의 경우 서울외소재 대학에 비해서 연구업적이 높다.

세 번째 변수는 보상체계이다. 경제적 요인은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구에서도 중요한 동기부여의 요인이 된다. 그런데 연구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연봉과 연구비로 구분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봉자체가 연구업적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봉은 연구업적과 무관하여 고정급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연구비는 연봉과 달리 성과급 성격을 갖는다. 고정급보다 성과급이 연구업적에 영향을 크게 줄 것이므로 보상체계(=연구비/연봉)에서 연구비 비중이 높은 대학은 연구비 비중이 낮은 대학보다 연구업적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이 가능하다.

가설 3: 성과급 비중이 높은 보상체계를 갖는 대학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대학에 비해서 연구업적이 높다.

네 번째 변수는 학과인원이다. 연구는 단독으로도 수행하지만 최근에는 공동연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과규모가 커서 동료교수들이 많다면 공동연구의 기회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수들 사이의 경쟁이 생겨서 연구업적에 정(+)의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이 가능하다.

가설 4: 학과 인원이 많은 대학의 경우에는 적은 대학에 비해서 연구업적이 높다.

이상의 네 가지 가설은 연구자가 속한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제는 연구자의 개인 특성을 나타내는 교수요인을 살펴 볼 것이다. 교수요인 중에서는 먼저 학업경로를 보려고 한다. 학업경로라고 함은 연구자가 학부와 대학원을 어떻게 거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는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학업경로를 나타내는 변수는 동(同)대학원, 유학여부, 전공, 세 개로 구성한다.

학업경로의 첫 번째 변수인 동(同)대학원이란 연구자인 교수가 출신학부와 동일한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동일 대학원 진학이 많지 않다. 그 이유는 타(他)대학원으로 진학하면서 새로운 연구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교수의 지도를 받으면서 연구역량이 증대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에서는 동(同)대학원으로의 진학이 많은 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연구업적의 차이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가설 5: 동(同)대학원의 경우에는 연구업적이 타(他)대학원의 경우보다 연구업적이 낮다.

학업경로의 두 번째 변수는 유학여부이다. 이는 타대학원으로의 진학하는 경로 중에서도 외국 대학원에 유학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경영학은 미국에서 발전된 학문이므로 자연스럽게 미국에는 경영학의 연구자료와 연구기법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 대학원 중에서도 미국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이 교수가 된 이후 연구업적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가설 6: 미국박사 교수의 연구업적은 국내박사 교수의 연구업적보다 높다.

학업경로의 세 번째 변수는 전공이다. 본 연구는 재무 분야와 회계 분야의 연구업적을

함께 분석하고 있다. 경영학의 세부 각론이 생산, 마케팅, 인사, 조직, 재무, 회계, MIS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재무와 회계분야가 연관성이 깊어서 함께 분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둘의 전공차이가 연구업적에 영향을 주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7: 회계와 재무의 전공 차이가 연구업적의 차이로 나타난다.

교수요인의 마지막 변수는 근무기간이다. 근무기간이 길면 연구업적이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통해서 근무기간과 연구업적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가설 8: 근무기간과 연구업적은 정(+)의 관계에 있다.

위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업적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가설에서 제시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해서 회귀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연구업적은 전체업적, 국제논문, 국내논문, 저서 등으로 구분해서 이상의 가설을 회귀모형으로 검증하고자 할 것이다. 여기서 국제논문은 SSCI급의 논문이고 국내논문은 KCI 등재(후보)지 논문이다. 이들 세 가지 유형은 같은 연구업적이라고 해도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렇게 구분해서 분석하면 더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모형의 구조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표 1>이 된다.

<표 1> 연구모형의 구조

피설명변수	요 인	설명변수
1. 전체 연구업적	학교요인	1. 설립유형
2. 국제논문		2. 서울소재
3. 국내논문		3. 보상체계
4. 저서		4. 학과인원
	교수요인	5. 동대학원
		6. 미국박사
		7. 전공
		8. 근무기간

그리고 이를 구체적인 회귀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연구모형]

$$Y_{ij} = \lambda_i + \lambda_{1i}X_1 + \lambda_{2i}X_2 + \dots + \lambda_{7i}X_7 + \lambda_{8i}X_8 + \epsilon_i$$

피설명변수

Y_{ij} = j대학교 i교수의 연구업적 (전체, 국제논문, 국내논문, 저서)

설명변수

$X_1, X_2, \dots, X_7, X_8$ = 설립유형, 서울소재, ..., 전공, 근무기간

여기서

X_1 = 국공립대학이면 1, 사립대학이면 0

X_2 = 서울소재대학이면 1, 아니면 0

X_3 = 보상체계(연구비/연봉)

X_4 = 학과 인원

X_5 = 동대학원 진학이면 1, 아니면 0

X_6 = 미국박사학위이면 1, 아니면 0

X_7 = 재무전공이면 1, 회계전공이면 0

X_8 = 근무기간(년)

Ⅲ. 실증분석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우리나라 전국 62개 4년제 대학교의 경영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들 중에서 재무 및 회계 분야의 교수 325명의 연구업적 자료이다. 표본의 구성내역을 보면 <표 2>와 같다. 표본선정의 객관적 기준은 없지만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면서 교수의 수는 서울소재 대학과 서울 외 소재 대학의 인원이 비슷하게 구성되도록 하였다.

연구업적 자료는 한국연구재단의 정보시스템(Korea Researcher Information)에서 수집하였다. 연구모형의 종속변수가 되는 연구업적은 2018년 현재 각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가 임용 후부터 2018년까지 발표한 논문과 저서를 집계한 것이다. 논문은 KCI(Korea Citation Index),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SCI(Science Citation Index)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차별적으로 점수화하였다. 1인 단독논문 기준으로 SCI급 국제논문은 200점, 그 외 국제논문은 150점, 국내논문(학진등재지, 등재후보지)은 100점으로 점수화하고 저서는 국내논문과 같은 비중으로 100점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기여도와 참여자 수(n)를 반영하여 점수화하였다. 주저자와 교신저자의 경우에는 단독논문 기준 점수에 $2/(n+1)$ 를 곱하고 단순한 공동저자의 경우에는 $1/(n+1)$ 을 곱해서 주저자와 교신저자의 기여도를 단순한 공동저자의 기여도의 2배로 계산하였다.

<표 2> 표본의 구성

권역	학교명	대학수 (구성비%)	인원수 (구성비%)
서울	고려대, 경희대, 국민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15개 대학 (24.2%)	141명 (43.4%)
경기	가천대, 가톨릭대, 경기대, 단국대, 대진대, 아주대, 안양대, 인하대, 평택대, 한경대, 한신대, 항공대	12개 대학 (19.4%)	40명 (12.3%)
충청강원	강원대, 강릉원주대, 건양대, 공주대, 배재대, 서원대, 세명대, 순천향대, 청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남대, 한림대, 호서대	14개 대학 (22.6%)	42명 (12.9%)
영남	경남대, 경북대, 경상대, 대구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대, 안동대, 영남대, 창원대	10개 대학 (16.1%)	51명 (15.7%)
호남제주	군산대, 목포대, 순천대, 우석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호원대	11개 대학 (17.7%)	51명 (15.7%)
합계		62개 대학 (100%)	325명 (100.0%)

연구업적의 설명변수는 연구모형에서 밝혔듯이 학교요인과 교수요인으로 구별하였다. 학교요인들은 대학알리미 사이트와 네이버 및 다음 등 포털 검색엔진에서 검색하였고 교수요인들은 각 대학의 홈페이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구하였다. 학교요인은 설립유형, 서울소재여부, 보상체계, 학과인원 등 4개 변수로 구성된다. 이중에서 설립유형과 서울소재 여부는 더미변수이다. 그리고 교수요인은 동대학원, 유학, 전공 등 3개의 더미변수와 근무기간이 있는데 관련된 기초통계량을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를 보면 62개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재무와 회계 전공 325명 교수들의 연구업적 및 이와 관련된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량이 제시되어 있다. 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업적은 국제논문(SSCI, SCI 등), 국내논문(KCI), 저서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교수로 임용되어서 2018년까지 연구를 수행한 업적을 점수로 나타낸 값이 2212.85점이다. 그리고 이의 세부적 구성 내용은 국제논문 777.98점, 국내논문 1091.71점,

저서 343.17점이다. 둘째, 경제적 요인으로 보상체계를 측정하였는데 이 값은 연구비를 연봉으로 나눈 비율이다. 여기서 연구비와 연봉은 2018년의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연봉은 정교수 연봉이고 연구비는 과제당 교내연구비이다. 보상체계를 나타내는 비율의 평균값이 0.085인 것은 과제당 교내연구비 금액이 연봉의 8.5% 수준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연구비는 성과급 성격을 갖고 연봉은 고정급 성격을 가지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성과급 성격이 강한 보상체계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재무와 회계 분야가 경영학에 속하므로 학과규모를 경영학과 교수의 인원수로 측정하였는데 표본 62개 대학교에서 평균 15.34명으로 나타났다. 넷째, 62개 대학교 325명 교수들의 평균 근무기간은 18.88년이다.

<표 3> 기초통계량

국내논문과 저서는 100점, 국제논문 중 SCI급은 200점, 그 외는 150점으로 하고 논문기여도를 반영하여 점수로 산출하였다. 보상체계는 과제당 교내연구비를 연봉으로 나눈 비율이며 학과규모는 경영학과 교수의 수, 근무기간은 2018년 말 현재 기준으로 소속대학에 재직할 기간이다.

	전체 업적	국제 논문	국내 논문	저서	보상 체계	학과 규모	근무 기간
평균	2212.86	777.98	1091.71	343.17	0.0850	15.34	18.88
중앙값	1853	330	801	146	0.0568	11.50	18
표준 편차	1697.82	1115.81	1200.96	494.97	0.0837	12.68	8.93
분산	2882577	1245038	1442312	244993.8	0.0070	160.85	79.72
첨도	7.95	5.67	11.72	9.72	11.83	1.25	-0.80
왜도	2.17	2.23	2.65	2.60	2.95	1.35	0.27
최소값	0	0	0	0	0	1	1
최대값	13218.33	6177.33	9404	3725	0.52	53	40
관측수	325	325	325	325	62	62	325

2. 전체 연구업적의 분석결과

전체 연구업적을 피설명변수로 하고 학교요인과 교수요인을 나타내는 설명변수로 회귀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의 분석결과에서 연구업적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설립유형이 국공립/사립 여부는 t 통계량이 -0.99(P-값은 0.32)로 낮아서 연구업적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공립대학의 교수들은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립대학 교수의 연구업적이 더 높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른 것이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승진 또는 재임용요건에서 국공립대학보다 더 많은 연구실적이 요구되고 있으며 심지어 정년보장을 받은 이후에도 연구실적이 부족하면 주기평가 등의 방법으로 호봉승급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표 4> 전체 연구업적에 대한 분석결과

국제논문, 국내논문, 저서를 모두 합한 총점수를 학교요인과 교수요인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이 결과는 세 가지 유형의 가중치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 **, ***는 90%, 95%, 99%신뢰수준에서 유의함.

변수		회귀계수	t 통계량
학교요인	절편	1809.49	5.61***
	설립유형	-214.22	-0.99
	서울소재	165.78	0.55
	보상체계	4719.61	3.69***
	학과규모	10.96	1.39
	동대학원	-668.66	-2.54**
교수요인	미국박사	-1033.34	-3.55***
	재무/회계	-109.04	-0.58
	근무기간	19.48	1.88*
관측수(N) 325		R ² 0.107824	F값 4.773779
		Adj.R ² 0.085237	(유의한 F 1.49E-05)

둘째, 서울소재 여부는 t 통계량이 0.55(P-값은 0.59)로 낮아서 교수들의 연구업적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서울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서울소재 대학은 지방대학보다 더 연구요건이 높고 연구업적도 많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분석 결과는 이러한 예상과는 다른 것이다.

셋째, 보상체계는 t 통계량이 3.69(P-값은 0.000259)로 매우 높아서 교수들의 연구업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부호가 정(+)이므로 보상체계를 나타내는 비율이 높을수록 연구업적이 많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보상체계비율은 교내 과제당 연구비를 교수연봉으로 나눈 값이므로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성과급 요소가 큰 보상체계라는 것이다. 결국 분석결과는 성과급이 업적을 높인다는 것이다.

넷째, 학과규모는 경영학파에 소속된 교수의 수로 측정하였는데 이는 연구업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동(同)대학원의 변수는 t 통계량이 -2.54(P-값은 0.01)로 매우 높아서 99%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게 연구업적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부와 대학원을 같은 대학에서 수료한 경우에 연구업적이 낮다는 의미인데 이는 미국 학계의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미국에 유학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연구업적을 분석한 결과는 t 통계량이 -3.55(P-값은 0.000446)로 매우 높아서 매우 유의하게 연구업적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국 대학원에 유학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연구업적이 낮다는 것인데 일반적인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인 것이다.

일곱째, 재무전공이나 회계전공이냐는 것은 t 통계량이 -0.58(P-값은 0.56)로 낮아서 연구업적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근무기간은 t 통계량이 1.88(P-값은 0.06)이므로 유의도 10%이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국제논문 업적의 분석결과

전체 연구업적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예상과 달라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보인다. 미국에서는 주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우리나라에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차이가 없다는 점, 특히 미국박사학위 교수의 연구업적이 낮은 점이 그렇다. 그래서 연구업적을 국제논문, 국내논문, 저서의 세 유형별로 구분해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제논문은 SSCI, SCI 등의 논문으로서 기초통계량을 보면 평균이 777.98점이다. 1인 단독기준으로 한 편을 200점으로 설정하였으므로 18.88년 동안 3.89편의 국제논문을 발표했다는 의미이다. 대략 19년 근무하는 동안 4편 정도의 국제논문을 발표한 셈이다. 이러한 국제논문 업적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었다.

<표 5> 국제논문 업적에 대한 분석결과

국제논문 업적(SCI급은 200점, 그 외는 150점)을 학교요인과 교수요인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 **, ***는 90%, 95%, 99%신뢰수준에서 유의함.

변수		회귀계수	t 통계량
학교요인	절편	342.37	1.72*
	설립유형	-226.15	-1.70*
	서울소재	1034.18	5.52***
	보상체계	1760.57	2.23**
	학과규모	-2.78	-0.57
교수요인	동대학원	-101.23	-0.62
	미국박사	-367.03	-2.04**
	재무/회계	90.08	0.78
	근무기간	5.88	0.92
관측수(N) 325		R ² 0.213996	F값 10.75418
		Adj.R ² 0.194097	(유의한 F 2.15E-13)

국제논문 업적을 분석한 <표 5>의 내용을 보면 전체 연구업적을 분석한 <표 4>의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눈에 띈다.

첫째, 전체 연구업적을 분석했을 때에는 국공립대학 변수가 유의성이 없었지만 국제논문

업적에서는 t 통계량이 -1.70(P-값 0.09)로 나타나서 90% 신뢰수준에서 유의성을 보인다. 부호가 음(-)이므로 국제논문 업적은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에 비해서 낮다는 의미이다. 이는 미국에서 주립대학보다 사립대학의 연구업적이 높다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 결과는 같지만 원인은 다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미국에서는 사립대가 주립대보다 더 많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서 그렇고 한국에서는 사립대가 국공립대보다 승진 및 재임용 요건이 더 엄격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서울소재여부 역시 전체 연구업적을 분석했을 때는 유의성이 없었으나 국제논문 업적으로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t 통계량이 5.52(P-값 7.04E-08)로 나타나서 매우 강력한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제 논문은 거의 서울소재 대학의 교수들이 발표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서울소재 대학들은 대학원생이 많아서 연구환경이 좋은 편이고 교수의 승진 및 재임용 요건에 국제논문을 필수업적으로 하거나 평가비중을 높게 인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서울소재 대학 중에서 저서는 물론이고 국내 논문도 필수업적에서 배제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보상체계는 전체 연구업적에서 유의성이 있었던 것과 같이 국제논문 업적에서도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같은 학과에 소속된 교수의 수는 전체 연구업적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논문 업적에서도 연구업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논문의 경우에는 국내의 같은 학과 교수들과의 공동 작업보다는 외국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들과의 공동 작업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동(同)대학원의 변수는 전체 연구업적에서는 유의하게 연구업적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제논문 업적에서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미국박사학위는 전체 연구업적을 분석했을 때에는 매우 유의하게 연구업적에 부(-)의 영향을 주었다. 이것이 기대와는 많이 다른 결과이기 때문에 이들의 경우 국내박사에 비해서 국제논문 발표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하여 추가분석을 수행한 것이다. 그런데 <표 5>의 결과를 보면 t 통계량이 -2.04(P-값 0.04)로 나타나서 여전히 95% 신뢰수준에서 연구업적에 부(-)의 영향을 보이고 있다.

일곱째, 전공의 차이(재무 또는 회계)는 전체 연구업적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나 국제논문 업적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나 동일하게 연구업적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근무기간은 전체 연구업적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유의하였지만 국제논문 업적을 분석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국내논문 업적의 분석결과

이번에는 국내논문 업적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국내논문은 KCI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논문으로서 1인 단독기준으로 한 편을 100점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기초통계량에서 보듯이 대략 19년 근무하는 동안 11편을 발표한 셈이다. 이는 국제논문 발표건수인 4편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 국제논문을 연구업적으로 비중 높게 인정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또 국제논문의 게재가 어렵고 소요기간도 긴 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논문 업적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국내논문 업적에 대한 분석결과

KCI 등재(후보)지 논문을 100점으로 산출한 업적을 학교요인과 교수요인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 **, ***는 90%, 95%,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함.

변수		회귀계수	t 통계량
절편		1484.03	6.71***
학교요인	설립유형	-9.81	-0.07
	서울소재	-867.18	-4.16***
	보상체계	2384.40	2.72***
	학과규모	12.28	2.27**
교수요인	동대학원	-566.63	-3.14***
	미국박사	-544.70	-2.73***
	재무/회계	-236.53	-1.85*
	근무기간	-2.26	-0.32
관측수(N) 325		R ² 0.161471	F값 7.606326
		Adj. R ² 0.140243	(유의한 F 2.62E-09)

<표 6>의 분석결과를 보면 국제논문 연구업적을 대상으로 분석한 <표 5>의 결과와 달리 설립유형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변수가 유의성을 갖는다.

첫째, 국제논문 업적을 분석했을 때에는 국공립대학의 업적이 사립대학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내논문 업적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논문 업적에 있어서는 두 유형의 대학 교수들의 연구업적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둘째, 서울소재여부는 t 통계량이 -4.16(P-값 4.03E-05)로 나타나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국제논문과 반대로 부호가 음(-)이어서 서울소재 대학의 연구업적이 낮다는 것이다. 이는 곧 서울외소재 대학이 국내논문을 유의적으로 많이 발표한다는 것인데 국제논문 업적을 분석할 때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소재 많은 대학에서 승진 및 재임용

요건에 국제논문이 필수업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소재 대학에서는 국제논문을 많이 발표하고 서울외소재 대학에서는 국내논문을 많이 발표하는 특징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가 상쇄되어 전체 연구업적을 분석할 때에는 서울소재 여부가 연구업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보상체계는 국제논문 업적에서도 유의성이 높았던 것과 동일하게 국내논문 업적에서도 성과급적 요소가 매우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과규모(동료교수의 수)는 국제논문에서는 연구업적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국내논문에서는 t 통계량이 2.27(P-값 0.02)로 나타나서 95% 신뢰수준에서 높은 정(+)의 유의성을 보이는데 국내논문에서는 동료교수들과의 공동 작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동(同)대학원의 변수는 국제논문 업적에서는 유의성이 없었지만 국내논문 업적에서는 t 통계량이 -3.14(P-값 0.0018)로 나타나서 99% 신뢰수준에서 매우 높은 유의성을 보이고 있다. 부호가 음(-)이므로 출신학부와 동일한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수들의 연구업적이 유의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출신학부와 다른 타(他)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수들의 연구업적이 높다는 것이다.

여섯째, 미국박사학위는 t통계량이 -2.73(P-값 0.0067)로 나타났다. 미국박사학위는 국제논문 업적에서만뿐만 아니라 국내논문 업적에서도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유의성은 신뢰수준 95%에서 99%로 더 높아졌다. 이는 국제논문, 국내논문 업적에서 모두 미국박사들의 연구업적이 국내박사들의 연구업적에 비해서 낮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예상과 반대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재확인하고자 추가분석을 수행하였다. 전체 표본 325명 중에서 미국박사는 총171명인데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소재 대학의 교수의 수 141명 중 129명이 미국박사이고 서울외소재 대학 교수 184명 중 42명이다. 즉, 서울소재대학의 경우에는 91.5%가 미국박사이고 서울외소재 대학의 경우에는 미국박사가 22.8%이다. 따라서 서울소재변수와 미국박사변수 사이의 다중공선성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 변수들의 분산팽창계수(VIF)를 구했다.

<표 7> 변수별 분산팽창계수

변수	설립 유형	서울 소재	보상 체계	학과 규모	동대 학원	미국 박사	재무 전공	근무 기간
VIF	1.290	2.792	1.483	1.707	1.500	2.606	1.072	1.051

그런데 <표 7>의 결과를 보면 서울소재변수와 미국박사변수의 VIF가 다른 변수들에 비해서 높기는 하지만 분석결과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국박사

교수의 연구업적이 낮다는 결론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들에게 우호적인 분위기인 점이 원인일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이들에게 연구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기 때문이다.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연구외활동이 많으면 연구업적이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일곱째, 국제논문 업적에서는 재무와 회계의 전공차이가 연구업적과 무관하였는데 국내논문 업적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재무전공의 경우에는 t 통계량이 -1.85(P-값 0.0654)로 나타났는데 회귀계수의 부호가 음(-)이므로 재무전공의 경우에는 회계전공에 비해서 국내논문 업적이 낮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국내논문의 경우 재무전공의 논문의 발표 기회가 회계전공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목록을 보면 사회과학(대분야)의 하위(중)분야로 경영학과 회계학이 있는데 재무분야는 경영학의 하위분야이면서 학술지의 수도 더 적은 것이 확인된다.

여덟째, 근무기간은 국제논문 업적에서와 같이 국내논문 업적에서도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저서 업적의 분석결과

저서는 국내논문과 마찬가지로 1인 단독기준으로 한 편을 100점으로 설정하였다. 기초 통계량에서 평균값이 343.17이므로 대략 19년 근무하는 동안 3.4편을 저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저서업적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8>에 제시되었다.

<표 8> 저서업적에 대한 분석결과

저서 한 편을 100점으로 산출한 업적을 학교요인과 교수요인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 **, ***는 90%, 95%, 99%신뢰수준에서 유의함.

변수		회귀계수	t 통계량
학교요인	절편	-16.91	-0.18
	설립유형	21.74	0.35
	서울소재	-1.22	-0.01
	보상체계	574.64	1.54
	학과규모	1.46	0.63
	동대학원	-0.81	-0.01
교수요인	미국박사	-121.61	-1.43
	재무/회계	37.40	0.69
	근무기간	15.86	5.25***
관측수(N) 325		R ² 0.104558	F값 4.612273
		Adj. R ² 0.081888	(유의한 F 2.43E-05)

<표 8>의 분석결과를 보면 앞서 국제논문, 국내논문의 분석결과와 크게 다른 점을 볼 수 있다. 즉, 거의 모든 변수가 저서업적과 연관성이 없는 것이다. 다만 교수로서 근무한 기간만이 유일하게 영향을 주는데 t 통계량이 5.25(P-값 2.87E-07)로 나타나서 99% 신뢰수준에서 유의성을 보여 매우 높다. 이는 근무기간이 길수록 저서를 많이 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IV. 결 론

본 논문은 재무와 회계 분야의 연구업적이 갖는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업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학교요인과 교수요인, 두 가지 범주로 구분했다. 여기서 학교요인은 설립유형, 지리적 위치, 경제적 보상체계, 경영학과의 규모, 네 가지 설명변수로 측정하였다. 교수요인은 연구자가 출신학부와 동일한 대학원의 진학 여부, 미국박사 여부, 재무전공이나 회계전공이나, 그리고 근무기간을 설명변수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피설명변수는 우선 전체 연구업적으로 분석하고 다음 단계로 그 결과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연구업적을 국제논문, 국내논문, 저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요약한 것이 <표 9>이다.

<표 9> 유형별 분석결과의 요약

*, **, ***는 90%, 95%, 99%신뢰수준에서 유의함.

	전체 업적	국제논문	국내논문	저서
설립유형		(-)*		
서울소재		(+)**	(-)**	
보상체계	(+)**	(+)**	(+)**	
학과인원			(+)**	
동대학원	(-)**		(-)**	
미국박사	(-)**	(-)**	(-)**	
재무전공			(-)*	
근무기간	(+)*			(+)**

<표 9>의 결과를 1단계로 학교요인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논문에서 국공립대는 사립대에 비해서 연구업적이 낮는데 이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승진요건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서울소재 대학은 국제논문에서 서울외소재 대학에 비해서 매우 높은 연구업적을 내고 있다. 이는 서울소재 대학에서는 국제논문을 비중 높게 인정하고 심지어 국내논문과 저서를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학도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자연스레 서울외소재 대학은 국내논문에서 연구업적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결과가

상쇄되어 전체 연구업적에서 지리적 위치가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경제적 보상체계에서 과제당 교내연구비가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성과적 특징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국제논문, 국내논문 모두에서 유의성이 높게 확인되었다. 넷째, 학과 규모는 국내논문에서만 유의적인 정(+)의 관계를 보이는데 국내논문은 동료교수들과 공동연구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논문은 주로 외국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하기 때문인지 학과규모와 무관하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단계로 교수요인을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타대학원으로의 진학이 일반적인 미국 학계의 관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대학원 변수로 연구업적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내논문에서 매우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국내에서도 미국 학계의 관점이 확인되는 결과이다. 둘째, 미국박사학위는 국제논문과 국내논문에서 모두 매우 유의적인 부(-)의 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기대와 반대되는 결과이다. 셋째, 재무전공의 경우에는 회계전공에 비해서 국내논문에서 부(-)의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재무분야의 논문발표기회가 더 적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넷째, 근무기간은 저서업적에서만 유의적으로 정(+)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근무기간이 길면 저서가 많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고 본다. 첫째, 표본선정과 관련된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 대학을 지역별로 골고루 포함시키면서도 연구자의 수가 서울소재 대학과 서울외소재 대학을 같은 비슷한 비중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객관적인 선정기준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연구업적의 점수화와 관련된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논문, 국내논문, 저서를 2:1:1의 비율로 점수를 부여했는데 이 기준이 연구의 질적 차이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 탐저널의 경우 그 비중을 높게 반영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셋째, 연구업적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년보장, 학교랭킹과 같은 변수에 대한 통제가 없었다는 점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처음으로 재무와 회계의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업적의 특징을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유사한 선행연구들이 이질적인 학문분야를 전체로 다루었지만 본 연구는 학문의 동질성을 확보한 표본을 분석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연구업적의 유형을 고려한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이다. 선행연구들은 논문을 대상으로 산출된 하나의 업적지표를 분석하였지만 본 연구는 국제논문, 국내논문, 저서로 구분한 유형별 분석에서 세부적인 결과를 비교할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업적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대학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즉, 대학 간 경쟁이 심화되고 대학의 연구업적이 중요한 평가요소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제한된 예산으로 연구업적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이고 유효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훈호, 박환보, “교수의 개인 특성과 대학의 연구환경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 *교육행정학 연구*, 제29권 제2호, 2011, 185-210.
- 육근효, “교수업적평가 지표간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연구”, *회계정보연구*, 제10권 제4호, 2010, 1-18.
- 이의경, “경영학 교수의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영학연구*, 제49권 제6호, 2020, 1621-1641.
- 이재성, “대학의 고용-교육 데이터를 활용한 졸업생 진로, 교수 연구실적, 그리고 강의평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4.
- 정재만, “<재무관리연구> 인용분석”, *재무관리연구*, 제38권 제4호, 2021, 315-337.
- 정지선, “대학교수의 경력단계별 학술활동 특징 분석: 교육봉사연구행정활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 Allison, P. D., and J. S. Long, “Departmental Effects on Scientific Productiv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4), (1990), 469-478.
- Barney, J. B.,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17, (1991), 99-120.
- Barney, J. B. and A. M. Arikan, “The resource-based view: Origins and implications. In M. A. Hitt, R. E. Freeman, J. S. Harrison(Eds.), *The Blackwell Handbook of Strategin Management*(124-188). Malden, Massachusetts; Blackwell Publishers, Inc., 2001.
- Becker, G. S.,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5), (1962), 9-49.
- Bellas, M. L. and R. K. Toutkoushian, “Faculty Time Allocation and Research Productivity: Gender Race, and Family Effects,” *The Review of Higher Education*, 22(4), (1999), 367-390.
- Biglan, A., “Relationship between Subject Matter Characteristics and the Structure and Output of Universit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7(3), (1973), 204-213.
- Bland, C. J., B. A. Center, D. A. Finstad, K. R. Risbey, and J. Staples, “The Impact of Appointment Type on the Productivity and Commitment of Full-time Faculty

- in Research and Doctoral Institution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7(1), (2006), 89–123.
- Dundar, H. and D. R. Lewis, “Determinants of Research Productivity in Higher Education,”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39, (1998), 607–631.
- Grant, R. M., *Contemporary strategy analysis: Concepts, techniques, applications*, Oxford : Blackwell Publishing Ltd., 2002.
- Hesli, V. L. and J. M. Lee, “Faculty research productivity: why do some of our colleagues publish more than other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44(2), (2011), 393–408.
- Kim, J. S. and S. Kim, “Thirty years of the Journal of Derivatives and Quantitative Studies: a bibliometric analysis,” *Journal of Derivatives and Quantitative Studies*, 29(4), (2021), 258–279.
- Link, A. N., C. A. Swann, and B. Bozeman,, “A Time Allocation Study of University Faculty,”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7(4), (2008), 363–374.
- Long, J. S. and R. McGinnis, “Organizational Context and Scientific Productiv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4), (1981), 422–442.
- Marsh, H. W. and J. Hattie, “The Relation between Research Productivity and Teaching Effectivenes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3(5), (2002), 603–641.
- Maske, K. L., G. C. Durden, and P. E. Gaynor. “Determinants of Scholarly Productivity among Male and Female Economists,” *Economic Inquiry*, 41(4), (2003), 555–564.
- Noser, T. C., H. Manakyan, and J. R. Tanner, “Research Productivity and Perceived Teaching Effectiveness: A Survey of Economicx Faculty,”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37(3), (1996), 298–321.
- Over, R., “Does Research Productivity Decline with Age?,” *Higher Education*, 11(5), (1982), 511–520.
- Oster, S. M. and D. S. Hamermesh, “Aging and Productivity among Economist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0(1), (1998), 154–166.
- Schultz, T. P., “Capital Formation by Educ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8(6), (1960), 571–583.
- Toutkoushian, R. K., S. R. Porter, C. Danielson, and P. R. Hollis, “Using Publications Counts to Measure An Institution’s Research Productivity,”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4(2), (2003), 121–148.

- Wanner, R. A., L. S. Lewis, and D. I. Gregorio, "Research Productivity in Academia: A Comparative Study of the Sciences,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Sociology of Education*, 54(4), (1981), 238-253.
- Wernerfelt, B., "A Resource-based View of the Firm," *Management Journal*, 5(2), (1984), 171-180.
- Xie, Y. and K. A. Shauman. "Sex Differences in Research Productivity: New Evidence about an Old Puzzl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6), (1998), 847-870.

<부 록>

1. 재무분야 상위연구자

순위	국제논문	국내논문	저 서
1	김솔(외대)	임병진(영남대)	박동규(한양대)
2	김동철(고려대)	문규현(경기대)	윤평식(충남대)
3	송교직(성대)	여윤경(이대)	정홍주(성대)
4	박진우(외대)	홍정효(경남대)	강인철(경남대)
5	엄철준(부산대)	정중영(동의대)	조담(전남대)
6	구형건(아주대)	김병곤(창원대)	연강흠(연세대)
7	이동욱(고려대)	성주호(경희대)	이의경(대진대)
8	채준(서울대)	권택호(충남대)	김태혁(부산대)
9	원동철(아주대)	이준서(동국대)	여윤경(이대)
10	서정원(성대)	유시용(중앙대)	박세운(창원대)

2. 회계분야 상위연구자

순위	국제논문	국내논문	저 서
1	배진한(고려대)	배기수(충북대)	정재연(강원대)
2	백복현(서울대)	박재환(중앙대)	이준규(경희대)
3	최종민(경북대)	김문태(조선대)	이장희(충북대)
4	문두철(연세대)	이상철(동국대)	이장형(대구대)
5	조중석(한양대)	최종민(경북대)	한중수(이대)
6	최중학(서울대)	반혜정(안동대)	김연용(호서대)
7	김종대(인하대)	백원선(성대)	이창우(서울대)
8	유용근(고려대)	고종권(한양대)	이찬호(부산대)
9	송민섭(서강대)	손성규(연세대)	윤순석(전남대)
10	권수영(고려대)	최중학(서울대)	김길훈(제주대)

주) 1. 2018년 말 현재 경영학과에 재직 중이면서 소속대학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교수를 대상으로 하였음. 표본대학은 62개 대학이며 명단은 본문 <표 2>에 제시되어 있음.
2. 주저자와 교신저자는 $2/(n+1)$, 공동저자는 $1/(n+1)$ 을 곱하여 개인점수를 산출하였음.
3. 업적 유형별 개인점수를 근무연수로 나눈 연평균 점수 기준으로 순위를 부여하였음.

Characteristics of Research Achievements in Finance and Accounting

Eui-Kyung Lee*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research achievements in finance and accounting. Factors affecting achievements we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university factors and personal factors. As university factors, four explanatory variables(type, location, compensation, size) were used. As personal factors, four variables(graduate, US doc., major, working period) were used. For dependent variables, the total achievements were analyzed first, and they were analyzed into three types: international papers, domestic papers, and books. The results by university factors are as follows. First, the achievements of public universities are lower than those of private universities. Second,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have high achievements in international paper, and universities outside Seoul have high achievements in domestic paper. Third, compensation systems showed high significance. Fourth, department size showed a significant (+) relationship in domestic papers. The results by personal factors are as follows. First, the graduate school variable showed a significant (-) relationship in domestic papers. Second, the US doctoral variable showed a significant (-) relationship in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papers, which is contrary to the general expectation. Third, the finance major showed a (-) relationship in domestic thesis. Fourth, working period showed a significant (+) relationship only in book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research achievements by type while targeting finance and accounting fields.

Keywords : Finance, Accounting, Research Achievements, University Factors, Personal Factors

*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Daejin University, E-mail: ekleee@daejin.ac.kr